

# 교육개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대응

## -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중심으로 -

Policy Selections in Local Governments Against Opening Education  
- With Reference to World University Enticement -

김장기\* · 지경배\*\*

Kim, Jang-Gi · Ji, Kyoung-Bae

### < 목 차 >

- I. 서 론
- II. 교육개방화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적용범위
- III. 국내외 우수대학의 현황과 유치사례 분석
- IV. 지방정부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 전략과 추진방안
- V. 결 론

WTO체제로의 전환은 국가간 무역경쟁시대를 열어 놓았으며, 자국보호주의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의 다자·다국간 무역협상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역 개방은 FTA & DDA 등의 협상과정이 교육부문의 개방화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문의 무역개방은 자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된다.

그러나 교육 개방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대응은 사실상 많은 제약요인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교육개방화 전략으로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산출위하여 교육개방화에 대한 법·제도적인 특성, 교육개방화의 범위와 내용 등을 준거기준으로 국내외 해외 우수대학에 대한 국가별, 학문영역별, 학위취득별 현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는 국내 교육경쟁력 강화를

논문 접수일: 2007년 7월 27일

\* 근로복지공단 책임연구원

\*\*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위한 정책선택의 의미도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과도 부합된 정책대응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된다.

□ 교육개방화, 해외 우수대학, 교육경쟁력, 지방정부발전

The demands of WTO have been opening to educational industry and emphasizing of trade bargain, not a protective exchange of single country, among many nations. Expecially, The educational opening of international society has influencing to internal education system through FTA and DDA's bargaining process. It's very important to prepare of opening education and improve of educ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But many local governments haven't been of the opening strategies for their educational industry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of some enticement directions related to World Universities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has analyzed of current situations and enticement cases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nations. The result of analysis is suggest to effective policy selections of World University enticement for local development.

□ Keywords: Opening Education, World University, Educational Competition,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 I. 서론

GATT체제에서 UR협상의 논의와 WTO체제로의 전환은 자국중심의 국가보호주의에서 벗어나 다자·다국간 무역협상을 전제로 하여 국가이익 증대를 추구하는 무역경쟁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을 불러왔다. 국가보호주의는 자국의 보호 장벽 하에서 국가산업을 육성하는 단일 국가중심의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였으나, WTO체제의 전환은 국가경쟁력과 이익추구에 대해서는 국가간 무역개방과 경쟁에 대한 전략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WTO체제에서의 국가개방은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부문에서도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경쟁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교육개방과 경쟁의 국제적 요구는 전통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립현상과 함께 자국내 교육부문의 국제 경쟁력과 생존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교육자주권에 대한 강한 인식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개방화에 대한 시대적인 불가피성이 대두하면서 교육 생존권을 둘러싼 개방적 관점과 보호적 관점의 상대적인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개방화의 견해 차이는 자국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생존권 보호를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시각에서 비롯된다.

교육개방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국가 교육부문에 대한 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며, 부정적 입장은 오히려 교육부문의 침체와 쇠퇴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제시된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교육개방화는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정치·행정적인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지식경쟁시대는 사회변화의 흐름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 곧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양성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노동력 감소, 학생인구의 감소, 대학 입학생 저하, 지방대학의 침체 등 위기 사항이 초래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교육개방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현상이 제시되듯이, 교육부문의 개방과 보호를 위한 이중적인 견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교육개방화는 국내외 교육수요에 대해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자유로운 교육경쟁을 기반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무역개방과 동일한 성격을 나타낸다. 교육개방화의 긍정적 효과는 해외 유학비용의 절감, 해외 우수대학과 우수기업의 연계 유치효과, 전문화된 우수인력의 생산과 공급, 해외 대학과의 국제교류 및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sup>1)</sup>

하지만 교육개방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육개방화의 수준과 대외 교육경쟁력 강화는 매우 어려운 현실문제로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가능하다면, 자국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고려되지만, 지방정부수준에서 교육개방화에 대한 현실 문제를 적합하게 해

1) 2002년 조사자료에서 한국인 국외 유학생은 총 72개 국가의 149,933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OECD 국가내에서 유학생 숫자는 중국에 이어 2번째(전 세계 유학생의 5%)이며, 인구대비 유학생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유학생의 63%가 교육비를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기에 유학수지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2002년 국외 대학원·대학의 유학생수는 109,151(72.8%)명이며, 어학연수생은 40,782(27.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 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국 가 수	52	61	66	69	71	72
유 학 생 수	53,875	84,765	106,458	133,249	120,710	149,933

결하고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인재양성, 외부기업의 유치,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부존 자원의 활용 등의 파급효과와 관련된 전략적인 유치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지방정부수준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적 접근방법으로 「지역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교육개방화 대응 전략과 방안 모색을 현실적인 정책과제로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다.

## II. 교육개방화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적용범위

### 1. 교육개방화의 법·제도적 특성

우리 정부는 2003년 3월 31일 WTO에 대한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만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유지하는 일이라며 교육개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1차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양허안에서는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개방하고 성인교육의 경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반면에 초·중등 교육을 제외함으로써 초중등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제1차 양허안과는 달리 초중등학교까지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전면 허용, 국내 교육관련법 적용이 배제된 자율적 운영권 부여, 설립·운영 등의 규제 완화 및 각종 혜택 지원, 분교형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외국인 학교와의 병존, 결산잉여금의 해외 송금 가능, 국내학교와 동일한 학력인정, 내국인입학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된다(강내희, 2004:3-4).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설립 추진과정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1차 및 2차 공청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예고, 국무회의 통과 등을 과정으로 설계되어졌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교육자주권과 관심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적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경우 합헌성과 실효성, 경제자유구역법인 모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강내희, 2004:8-24). 특히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현행 교육관계법 적용을 배제하고 외국

2) 자세한 내용은 "한미FTA 교육협상 어떻게 되나(연합뉴스, 2006. 4.25일자)"를 참조.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설립투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부지, 건물 등에 대해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연합뉴스, 2006. 4.25). 그러므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조건 완화는 인천 송도지역의 송도국제학교, 영종도 지역의 상해영국국제학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광양 경제자유구역, 부산경제자유구역,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2. 교육개방화의 유형과 적용범위(mode 1~4)

일반적으로 교육개방화는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는 서비스의 공급형태이다. 일반협정(GATS)에 의한 교육개방화는 국가간 공급(cross-border),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현상(movement of natural persons)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분류기준은 관련 서비스의 공급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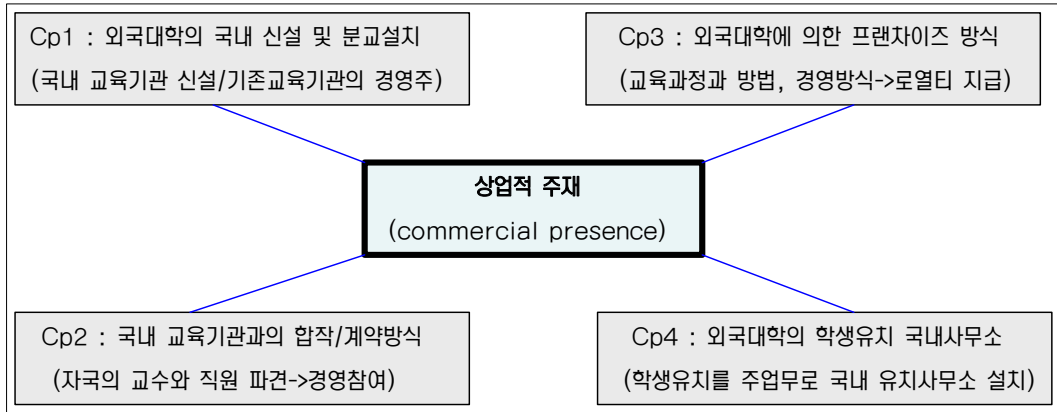
이처럼 국가간 교육서비스의 공급방식은 Mode1~Mode4의 4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가간 공급은 통신 및 우편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공급방식이며, 해외소비는 유학과 같이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공급방식이며, 해외소비는 다른 국가에서 자국의 교육기관을 입지시켜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상업적 주재는 타 회원국의 영토에서 자국민을 통한 교육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취급된다.

<표 1> 국가간 교육개방화의 서비스 유형과 적용내용

구	분	정	의	교육분야 사례
Mode1	국가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교육서비스의 공급	통신·우편에 의한 원격교육
Mode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교육서비스 공급	유 학
Mode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타 회원국의 영토에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교육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Mode4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타 회원국의 영토에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교육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	외국인 교수 /교사의 이동

\* 참고 : 교육인적자원부, 2003a : 6을 재편집함.

〈그림 1〉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의 설치 형태



위의 <표 1>과 <그림 1>은 교육개방화의 서비스 유형에 대한 분류형태와 상업적 주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상업적 주재는 Cp1~Cp4의 4가지 설치형태를 통해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공급형태는 외국대학의 국내 신설 및 분교설치, 외국대학에 의한 프랜차이즈 방식, 국내 교육기관과의 합작 및 계약방식, 외국대학의 학생유치 국내사무소의 설치 등 국외의 교육기관(대학)들이 자국내 교육부문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실제로 교육서비스의 공급방식은 해외소비와 같은 일종의 '유학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시스템의 발전은 국가간 공급과 상업적 주재 등의 교육서비스 방식의 확산을 예상하게 된다. 이를테면, 국가간 공급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가간 자유로운 실시간 교육서비스(on-line service)를 수행할 수 있으며,<sup>3)</sup> 상업적 주재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토대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주재는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와 같은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에 의해서, 다른 국가에서 제공되던 교육서비스가 자국내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부정적 관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교육개방화는 타

3) 인터넷(internet)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 국가간 교육서비스의 공급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현상은 국내외적 상황에서 보편화된 현상으로 수용되고 있다. 미국의 UCLA, Duke, Stanford대학은 온라인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영국대학의 약 75%가 적어도 하나의 해외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Vice-Chancellor 위원회는 35개의 대학에서 750개의 해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회원국의 교육기관이 국내에 입지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왔으나, 타 회원국의 교육기관들이 국내에 입지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도 깊게 다루어 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는 상업적 주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며, 해외 우수대학의 본교 및 분교 설립과 같은 국가간 사회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내 교육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외국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서비스 공급이 현지로 이동하여 외국대학의 신설 및 분교설립, 국내 교육기관과의 합작과 계약에 따른 경영참여,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공급에 따른 프랜차이즈 방식,<sup>4)</sup> 외국 교육기관의 학생모집을 위한 국내 사무소의 설치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 관여가 이루어지면서 교육경쟁력의 위기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sup>5)</sup>

### 3. 분석의 틀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FTA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기의식에 직면해 있다. FTA의 무역협상에서 기회요인은 경쟁력있는 산업을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위기요인은 경쟁력과 자립적인 역량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에는 침체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교육산업의 영역에서도 FTA의 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DDA)에 근거한 양허안을 기준으로 교육개방화에 대한 심각한 압력과 필요성, 위기의식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국내 교육분야의 자주권 확보에 대한 관심과 교육개방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국가적인 관심도가 팽배하게 나타나면서 교육개방화에 대한 '실익양론'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보다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교육개방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유치전략과 대응방안을 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교육개방화의 유치 전략과 대응방안의 모색은 교육개

4) 외국교육기관에 의한 국내 교육과정·경영방식·교육방법의 제공과 명칭 등의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5) 세계적으로 상업적 주재를 제한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스위스 등이고, 제한하는 국가는 EU국가, 뉴질랜드, 일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호주, 태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임. 상업적 주재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싱가포르 합작 또는 공동 프로그램으로 WCU(World Class University)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호주의 Monash 대학의 말레이시아 캠퍼스 설치, 미국 Temple 대학의 일본 분교 등을 유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방화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불가피한 정치·행정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면, 교육개방화에 따른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와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용주의 정책관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수행을 위하여 지방정부수준에서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 전략과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분석대상은 국내외 교육개방화의 동향, 국내외 해외 우수대학의 현황, 국내외 해외우수대학의 유치 사례 등을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중국에 가서는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를 통하여 지방정부차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간의 교육개방화가 국제사회의 시대적인 조류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비교우위의 상대적인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장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 분석 관점과 내용 설계

분석관점	분석대상	분석내용
지방정부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전략과 추진방안	국내외 교육개방화의 동향분석	· 도하개발(DDA)아젠다 협상형태와 방식 · 국가간 교육서비스 무역거래의 특성분석
	국내외 우수대학의 현황 분석	· 국가별 세계 우수대학의 순위 현황 분석 · 학문영역별 세계 우수대학의 현황 분석 · 학위취득별 세계 우수대학의 현황 분석
	국내외 우수대학의 유치사례 분석	· 국외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사례 분석 - 싱가포르 WCU, 호주 IDP · 국내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사례 분석 - 공동교육프로그램의 운영사례

### Ⅲ. 국내외 우수대학의 현황과 유치사례 분석

#### 1. 국내외 교육개방화의 동향분석

교육개방화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의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협정은 다자간 구속적 무역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반협정(GATS)은 교육서비스 부문을 비롯하여 다자간 서비스 무역의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며, 제4차 도하개발아젠다(DDA)에 근거한 국가간 서비스 무역의 협상전략으로



나타났다. 도하개발아젠다는 서비스 관련 12개 부문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국가간 협상 규범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sup>6)</sup>은 상대 국가에 대해서 양허를 요구하는 서비스 부문과 시장개방 조치를 담은 양허요청서를 제시하고, 상대국은 자국내의 개방부문과 개방조치를 담은 양허제안서를 제시하여 상호간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요청-제안(request-offer)방식의 일괄타결방법(single understanding)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근래까지 UR협상이후 총 146개국 중 55개 국가에서 초·중·고,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중 최소 1개 부문 이상을 양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가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3년 8월 146개국을 대상으로 30개 항목의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협상에 대한 1차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호주, 알젠틴, 캐나다, 중국, EC,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등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허안을 제출하였었고, 알젠틴, 호주, 브라질, 중국,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파키스탄 등 10개 국가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양허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sup>7)</sup> 국가간 교육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방적 조치는 자국내 교육산업에 대한 국가적 경쟁력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양허안의 허용여부가 곧 자국내 관련 서비스 무역부문에 대한 자체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서비스 무역부문에서 새로운 경쟁관계를 국가수준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서비스 부문에 대한 상대적 비교우위의 자체 경쟁력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3> 한국-상대국간의 양허요청서 제출현황

양허요청서 제출	국 가 명
한국 → 상대국	호주, 알젠틴, 캐나다, 중국, EC,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11개국)
상대국 → 한국	알젠틴, 호주, 브라질, 중국,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파키스탄(10개국)

\* 참고 : 2002년 6월 1차 양허요청서 제출현황에서 발췌·정리함(교육인적자원부, 2003a :9); 2002년 9월의 양허요청서는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출하였고, 10여개 국가에서 양허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6) 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도하개발아젠다의 약칭으로 사용됨.

7) 우리나라는 국민기초공통교육인 초·중등 교육과정의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한 양허배제,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서비스의 경우 국내 교육환경과 제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학교법인 제도, 수도권 지역 고등교육기관 설립 제한, 교육수요자의 보호와 교육의 질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양허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c).

## 2. 국외 우수대학의 현황분석

### 1) 국가별 우수대학의 순위 현황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2003)」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교육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별 우선순위가 발표되고 있다. 특히 조사자료 가운데 국가별 세계 100권 이내의 대학은 미국 58개(58%), 영국 8개(8%), 일본 5개(8%), 캐나다 4개(4%), 독일 4개(4%), 스위스 3개(3%)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sup>8)</sup> 대부분의 해외 우수대학은 미국의 점유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영국 8개 대학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서 5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일본대학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대학의 경우 세계 100위권 이내의 대학은 도쿄대학(Tokyo University), 교토대학(Kyoto University), 오사카대학(Osaka University), 토호쿠대학(Tohoku University), 나고야대학(Nagoya University) 등 소수 대학들이 세계 우수대학의 100위권 순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의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는 미국, 영국, 일본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세계적으로 학문적인 지명도와 경쟁력이 높은 대학일수록 국제적인 관심도와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세계 우수대학의 100위권 이내에 포함된 대학은 나타나고 있지 못하며, 국내 대학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전문성과 경쟁력에 기초한 대학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며, 학문별·전공영역별로 특성화된 전략수립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2002~2004년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국가별 우수대학에 대한 선호도는 국제적인 평가점수 못지않게 대학 지명도에 의한 선택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국내대학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8) 이외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표 4> 국가별 우수대학의 순위

순위	대 학 명	국가	종합 점수	순위	대 학 명	국가	종합 점수
1	Harvard Univ	미국	100	26	Univ California Santa Babara	미국	45.3
2	Stanford Univ	미국	83.5	27	Univ Wisconsin Madison	미국	45.0
3	Caltech	미국	76.3	28	Rockefeller Univ	미국	44.8
4	Univ California Berkely	미국	74.0	29	Northwestern Univ	미국	44.4
5	Univ Cambridge	영국	73.4	30	Kyoto Univ	일본	43.6
6	MIT	미국	70.6	31	Univ Colorado Boulder	미국	40.9
7	Princeton Univ	미국	62.5	32	Vanderbilt Univ	미국	40.4
8	Yale Univ	미국	61.1	33	Duke Univ	미국	40.4
9	Univ Oxford	영국	59.5	34	Univ Texas Southwestern Med Center	미국	39.5
10	Columbia Univ	미국	59.1	35	Univ British Columbia	캐나다	38.2
11	Univ Chicago	미국	57.0	36	Univ California Davis	미국	38.1
12	Cornell Univ	미국	56.9	37	Univ Minnesota	미국	37.8
13	Univ California S.F	미국	55.3	38	Rutgers State Univ New Brunswick	미국	37.2
14	Univ California S.D	미국	54.4	39	Karolinska Inst Stockholm	스웨덴	36.8
15	Univ California L.A	미국	53.8	40	Pennsylvania State Univ Coll Park	미국	36.5
16	Unive Washington Seattle	미국	50.3	41	Univ Utrecht	네덜란드	36.5
17	Imperial Coll Sci Tech Med	영국	50.1	42	Univ Southern California	미국	36.5
18	Univ Pennsylvania	미국	50.0	43	Univ Edinburgh	영국	36.0
19	Tokyo Univ	일본	49.4	44	Univ California Irvine	미국	35.9
20	Univ Coll London	영국	48.9	45	Univ Illinois Urbana	미국	35.2
21	Univ Michigan Ann Arbor	미국	48.8	46	Univ Zurich	스위스	35.2
22	Wasington Univ St.Louis	미국	47.8	47	Univ Texas Austin	미국	35.0
23	Univ Toronto	캐나다	45.8	48	Univ Munich	독일	34.1
24	Johns Hopkins Univ	미국	45.7	49	Brown Univ	미국	33.9
25	Swiss Fed Inst Tech Zurich	스위스	45.6	50	Astralian National Univ	호주	33.9

\* 참고 :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2004).

국가별 우수대학에서는 선진국의 대학순위가 높고, 국가별로는 미국·영국·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의 우선순위가 제시된다. 특히 아래의 <표 5>에서 제시된 대학별 평가순위에서는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대학에서는 평가점수와 유사한 반면에, 호주의 대학에서는 평가순위와 관계없이 지명도에 의해서 설명된다.

<표 5> 국가별 우수대학의 지명도와 순위

국 가	순위	대 학 명	국 가	순위	대 학 명
미 국 (종합 대학)	1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일 본	1	Tokyo University
	2	Harvard University(MA)		2	Waseda University
	3	MIT		3	Tohoku University
	4	Princeton University(NJ)		4	Hosei University
	5	Yale University(CT)		5	Meiji University
	6	Stanford University(CA)		6	Rikkyo University
	7	Duke University(NC)		7	Ritsumeikan University
	8	Johns Hopkins University(MD)		8	Kansai University
	9	University of Pennsylvania		9	Kanazawa University
	10	Columbia University(NY)		10	Kanazawa College of Art
영 국	1	University of Cambridge	호 주	1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	University of Oxford		2	University of Melbourne
	3	Imperial Colleague		3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4	Bristol		4	University of Sydney
	5	London, UCL		5	University of Queensland
	6	Warwick		6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7	London, LSE		7	University of Adelaide
	8	Edinburgh		8	Monash University
	9	Bath		9	Macquarie University
	10	St Andrews		10	University of Wollongong
캐 나 다	1	McGill University	뉴 질 랜 드	1	university of Auckland
	2	University of Toronto		2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3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3	Massey University
	4	McMaster University		4	University of Waikato
	5	University of Alberta		5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6	York University		6	Lincoln University(Christchurch)
	7	Carleton University		7	University of Canterbury
	8	Simon Fraser University		8	University of Otago
	9	University of Manitoba		-	-
	10	University of Ottawa		-	-

\* 참고 : <http://www.mbcuhak.com>: <http://privatewww.essex.ac.uk>: <http://studywonder.com/canada>: <http://www.australian-universities.com>에서 재정리함.

이와 같이 국가별 우수대학 현황은 미국의 종합대학에서는 평가순위를 중심으로, 영국과 캐나다는 대학평가순위를, 일본과 뉴질랜드는 대학지명도를, 그리고 호주는 아시아권 대학에서 제시된 우선순위 현황을 통해서 검토되고 있다. 국가별 대학순위에서, 위의 <표 4>와 같이 세계 우수대학으로 평가된 대학들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자국내의 교육경쟁력이 높은 국가 또는 선진국일수록 우수대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 2) 학문영역별 우수대학의 현황분석

미국대학의 경우 학문분야별 우수대학 순위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 학문영역은 교육학, 공학, 정보체제, 법학, 의학, 행정학 등을 대상으로 분석되며, 이에 기초한 유형별 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6>과 같이 제시된다. 학문영역별 해외 우수대학은 특성화된 학문영역을 중심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 또한 대학간 우선순위에 따른 지명도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6> 미국 대학의 학문영역별 우선순위

순위	교육학(Education)	공학(Engineering)	정보학(Information system)
1	Harvard UniversityZ(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	Stanford University(CA)	Stanford University(CA)	Carnegie Mellon University
3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University of Texas-Austin
순위	법학(Law)	의학(Medical-Research)	행정학(Public Affairs)
1	Yale University(CT)	Harva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2	Stanford University(CA)	Johns Hopkins University	Syracuse University
3	Harvard University(MA)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Indiana University

\*참고 : <http://www.usnews.com>

학문영역별로 살펴보면, Harvard University는 교육학, 의학, 법학, 행정학 등에 있어서 우수 대학으로 평가되며,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는 공학, 정보학 등에서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Stanford University는 교육학, 공학, 법학 등에서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Yale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yracuse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India University 등에서 학문분야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 3) 학위취득별 우수대학의 현황분석

한국인의 국외 학위취득은 교육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국외 우수대학별 한국인의 학위취득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선진국에서 한국인의 학위취득 또한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외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에서의 학위취득 현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국외 학위취득은 대학평가 및 선호도가 높은 미국대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대학에서의 학위취득 현황도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한국인의 국외 학위취득 현황분석

(단위 : 명)

국 가	대 학 명	학위 취득자
미 국	Univ. of Texas at Dallas	556
	Texas A & M Univ	455
	The Ohio State Univ	386
	Univ. of Illinois at Urbana	383
	Univ. of Michigan	340
	Univ. of Minnesota	305
영 국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Univ. of London	54
	The University of Leeds	47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45
	The University of Edinburgh	35
독 일	Freie University of Berlin	113
	Ludwing-Maximilians-Universitaet Muenchen	106
	Albert-Ludwings Univ. Freiburg	101
프 랑 스	Univ. de Paris IV(Paris-Sorbonne)	120
	Univ. de Paris I (Pantheon-Sorbonne)	109
캐 나 다	Canada Christian College and School of Graduate Theological Studies	44
	Nor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College	30
일 본	東京大學(도쿄)	751
	東北大學(JA-토호쿠)	315
	大阪大學(오사카)	287
	九州大學(큐우슈우)	278
	東京工業大學(도쿄코쿄)	263
호 주	University of Sydney	31
뉴질랜드	University of Canterbury	4

\*참고 : <http://www.krf.or.kr>의 자료를 재정리함.

국가내의 대학별 학위취득 현황에서는 미국의 경우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Texas A & M University, Th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Minnesota 등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외에 독일과 프랑스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학위취득 현황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대학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내에서는 동경대학, 토호쿠 대학, 오사카대학, 구주대학, 동경공업대학 등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아시아권의 교육선진국인 일본지역에 대한 학문적인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국외 학위취득 현황은 대학별 우선순위와는 달리, 학문영역별 선호도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명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 영국과 캐나다 등의 영어권 국가들보다 비교적 높은 학위취득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학문영역별 특성에 맞는 대학중심의 해외 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해외 우수대학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은 해외 우수대학에 대한 지명도, 평가순위 못지않게, 학문영역별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검토하여 살펴봄으로써 해외 유학에 따른 국내의 자본유출을 방지하는 효과 또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외에 학문영역별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 실제적인 수준에서 국내 대학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성숙도를 높임으로써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 3. 국내외 우수대학의 유치사례 분석

#### 1) 국외의 유치사례 : 싱가포르와 호주

##### (1) 싱가포르의 WCU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WCU 프로그램은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를 주축으로 교육부와 협력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유치를 위한 10년 계획(1998~2007)에서 비롯되었다. WCU 프로그램은 8개의 유망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교육기관은 산업체와 연계되어 있기에 교육과 연구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는 국제적 교육 허브(hub)로서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명성, 산학협동 발달과 비즈니스, 안전하고 국제적인 환경 등에서 강점(strength)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 우수대학의 문화(culture)와 제도의 이식,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경

힘의 공유, 캠퍼스내의 센터 설립에 의한 독립성 부여, 파트너 대학의 변화 유도 및 자극 등 외국대학의 아시아 거점 전략과 싱가포르의 대학변화를 위한 외적 자극모델로 추진함으로써 교육개방정책의 성공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에 의한 교육개방정책의 성공 유형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분석되며, 국외 우수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형과 독립형 분교설치 등이 그러하다. 특히 초기 국외 우수대학의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국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

〈표 8〉 싱가포르 WCU프로그램의 유치사례

유형	프로그램의 명칭	프로그램의 운영부문	대상국가	설립시기
공동프로그램형	Singapore-MIT Alliance(SMA)	-공학분야 : 세계수준의 대학원 및 연구센터의 건립 -경제리더로 젊은 엔지니어 양성	미 국	1998
	Johns Hopkins Singapore(JHS)	-의학교육과 연구중심 -Johns Hopkins-NUH 의학센터 건립	미 국	1998
	The Logistics Institute Asia-Pacific(TLI-AP)	-논리학과 공급체인관리의 5개 분야 교육 -2개의 공동학위 수여	미 국	1999
	Wharton SMU Research Centre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공동설립한 연구센터 -비즈니스 연구 및 기술혁신, 기업가정신, 기술경영, E-Commerce와 지식교류	미 국	1999
	Design Technology Institute(DTI)	-상품 디자인 및 개발, 기술의 연구·교육 -다학문분야의 전문기술자 양성	뉴질랜드	2001
독립형	INSEAD Asia Campus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유럽 경영대학원 -2003년 75개 국가의 유학생 유치	프랑스	2000
	The University of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	-미국 최초의 경영대학원 -중국건물의 임대방식 채택	미 국	2000
	Germ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GIST)	-Technical University Munich와 공동 설립한 화학학 분야의 공동학위과정	독 일	-

\* 주 : Singapore-MIT Alliance 프로그램의 초기 전략으로 연구와 교육용 Infra의 구축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의 1억불 재정지원이 나타남.



## (2) 호주의 국제개발 프로그램(IDP)

호주대학의 국제개발프로그램은 1969년 대학학장단 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Presidents)를 통해 발생하였고, 1980년대 중반이후 호주대학의 국제화 사업에서 비롯되었다. 호주의 대학학장단협의회는 일본,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1998년 호주대학의 국가간 협정체결은 2,800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호주대학의 국제개발프로그램은 35개의 대학에서 750여개의 해외 공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CU (Association of Commonwealth Universities), AUAP(Association of Universities of Asia and the Pacific), APEC, UNESCO 등과 연계된 국제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대학은 교육서비스의 해외 이전, 학생교환프로그램, 국제적 공동연구네트워크,<sup>9)</sup> 교직원외의 국제화, 교육과정의 국제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 2) 국내의 유치사례 분석 : 공동학술프로그램

국내의 선진국 우수대학(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국내유치는 2001년 12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외국 우수대학(원)의 분교 설치, 교육프로그램의 공동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방안을 제안하였고, 대학(원)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설립요건의 대폭완화, 대학교육체제의 국제화 종합대책안의 마련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국내분교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부 대학(원)을 중심으로 소수 MBA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0)</sup>

9) 호주대학들은 APHEN(Asia-Pacific Higher Education Network)에 의한 국제적 공동연구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0) MBA 프로그램은 ①국내대학 학위 수여의 코스 풀링(course pooling), ② 해외대학 학위수여의 코스풀링, ③공동학위(double degree)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코스풀링은 국내대학에서 일부 교육을 받고, 외국대학에서 남은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우천식, 2003:199).

〈표 9〉 국내 대학(원)의 외국대학 유치내용

국내유치대학(원)		공동프로그램운영대학	유 치 내 용	유치시기
대학원	연세대(MBA)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년차 수업채택	2002
	연세대(GEMBA)	미 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워싱턴대학 정규 MBA학위수여	1997
	세종대 세계경영대학원	미 국 University of Syracuse	세종대 MBA 수여	-
	중앙대	미 국 University of George Washington	-	-
	서울대	미 국 University of Duke	-	-
대학	계명대 음악학부	폴란드 쇼팽음악원	-	-
	서울산업대	영 국 University of Northumbria	-	-
기타	전경련/ 산업정책연구원	MBA유사 프로그램의 운영	-	-

2001년 8월 이후 교육부의 수요조사에 의하면 상당수 국내기관이 외국대학과의 교육개방에 따른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정부의 별도 지원없이 자체계획에 의한 신규프로그램이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학 중 외국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유치는 총 12개 대학(국립 3교, 사립 9교)으로 서울대 경영대학,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아주대 국제·경영대학원, KDI 정책대학원, 이화여대 대학원·국제대학원, 연세대 국제·정보·경영·산업대학원,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원)·동서의학대학원, 강원대 산업대학(원), 경북대 대학원·공과대학 등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사실상 외국대학(원)의 국내 분교유치는 사립학교법 제3조, 고등교육법, 대학 설립·운영규정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분교설립에 대한 설치조건과 제약요인(지역범위, 설립주체, 설립기준, 이사진, 운영형태)으로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 interview, 2004. 1. 20).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대학(원)의 분교유치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외국대학

11) 외국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은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 국제학 관련분야 및 기타 대학별 특성화와 관련된 분야에 한정되고 있다. 특히 MBA(9개 대학), 국제학, 임업, 바이오산업공학, 공학, IT(4개 대학), 기계공학, 정보학, 호텔관광, 의학, 대체의학 등으로 분포됨.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double degree)는 가능하나, 공동명칭의 학위수여(joint degree)는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된다.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시 제약되는 국내법상의 교육관련규제를 배제하거나 대폭 완화하여 동아시아의 교육 허브(hub)로서 도약하려는 계획을 추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3b).

## IV. 지방정부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전략과 추진방안

### 1. 정책대응과 유치전략

교육개방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만 할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현실적인 추세에서, 국가나 지방정부는 단지 보호론적 관점에서 자국내의 교육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정책을 일관한다면, 세계화의 시대에서 교육경쟁력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개방적·경쟁적 관점에서 교육부분을 전면 개방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면 자국내의 교육산업에 대한 상당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매우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국 또는 지역에서의 대학경쟁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실문제와 함께 GAT'S 체제하에서 DDA아젠다를 통한 국가간 교육서비스 개방이 필연적이라면, 전략적인 입장에서 해외 우수대학의 단계별 유치를 통해 국가 및 지역내부의 대학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중국적으로는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실용적인 정책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해외 우수대학 유치의 전략적 접근방법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첫째, 세계수준의 우선순위와 지명도가 높은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국내외적인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다. 세계적인 우선순위와 지명도가 높은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으로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시아 권내에서의 유학생을 유입하여 국내외 교육시장에서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학문별·전공영역별로 지명도가 높은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이다. 학문별·전공영역별로 지명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관할권내에 입지한 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교육부문의 협력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의 육성부문과 결부된 학문별·전공영역별 국외 우수대학을 유치함으로써 보다 고급화된 전문지식과 정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서 지역전략산업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용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인의 지명도가 높은 국외 우수대학을 유치하여 해외 유학생의 급증에 대한 사회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전략이다. 국내의 유학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본의 해외 유출현상이 심각하고, 또한 국내 대학별 대학원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도 설명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외 우수대학의 유치전략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국내 교육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국내 지방대학과 한국인의 지명도가 높은 외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학위프로그램의 운영」, 「공동교육과정의 개설과 학점인정제 도입」, 「학생교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지역내부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발과 부합된 특성화된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이다. 지방정부수준에서 잠재화된 사회자본들, 환경, 산업, 해양, 산림, 정보, 관광, 문화, 농업 등 다양한 자원개발 수준에서 세계적인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우수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다. 현실적으로 친환경적 차원에서 지역내부의 사회자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며, 사회자본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수립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 2. 추진방안의 검토

현실적으로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는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과제와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점에서 해외 우수대학 유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성공한 싱가포르와 호주의 국가사례를 통해서 추진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및 분교유치는 유치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process)를 기반으로 유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방정부는 해외 우수대학 유치에 대한 국내외 교육시장의 수요조사와 분석, 해외 우수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프로그램의 개발, 국외 우수대학의 분교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국외 우수대학의 캠퍼스 유치 등에 대한 계획적·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둘째, 해외 우수대학의 설립 및 분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의해서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광역 및 지방 발전을 위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수준의 지원 조례와 규정에 의한 유치 가능성을 확대 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전담팀 구성과 지원조례 제정, 기존 지역 대학과의 공동 유치전략 및 공동프로그램 개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보증, 교육기관으로서의 등록처리, 공동출자방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는 잠재화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만 한

다. 지역특성에 부합된 국외 우수대학의 유치와 유치 이후의 지역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요구와 발전에 부합된 우수대학의 선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된다.

넷째, 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대학과 해외 우수대학간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협정 등 다자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외 우수대학과 지역대학간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협정 등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외 우수대학의 유치에 따른 지역대학의 침체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방정부 수준에서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는 쉬운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다. 비록 WTO에 의한 교육개방화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교육개방의 추세와 정도는 국가간 교육개방서비스를 통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경우 교육개방화에 대비하여 교육개방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국가 및 지역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1차적으로 교육개방화에 대비하여 국가 및 지역 대학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2차적으로는 교육개방화에 따른 해외 우수 대학의 유치가 불가피하다면, 국가 및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전략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이점을 제고할 수 있어야만 한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개방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 지방정부수준의 대응방안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관심은 WTO라는 국제적인 개방화의 흐름에서, 국가간 교육개방화와 교육서비스의 경쟁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대응해보기 위함이었다. 비록 자국내 교육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지원이 중요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교육개방화에 따른 해외 우수대학의 국내진입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개방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동향은 여전히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국가간 상업적 무역거래의 일환으로 교육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개방화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교육개방화에 대해 국가와는 달리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대응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 교육자주권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교육개방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상대적일 수 있

지만, 실제로 교육개방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이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자주권에 대한 애착이 강한 국가적 상황에서 사회적 기대와 인식의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교육개방화에 대한 이익 극대화의 전략수립은 상당부분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수준에서 교육개방화의 정책대응은 정책주체인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와 실제적인 경쟁력을 요구하는 대학간의 이해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고려된다. 지역대학의 현실적인 침체상황에서 교육개방화에 따른 참여한 견해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에 따른 교육부문에서의 현실적인 이익을 상실하게 될 우려감마저 실제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개방화는 우선적으로 지역대학의 특성화와 자체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대학경쟁력을 확립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 강내희 (2004).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 분석,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 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공청회 자료집: 3-30.
- 교육인적자원부 (2003a). 알기 쉬운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1-12.
- (2003b).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2003c).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경과 및 현황.
- (2004d). 인적자원정책 수립과 홍보를 위한 주요 통계 자료: 40-71.
- 김남순 (2002).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한 논의, 광주지역정책토론회, 교육인적자원부: 43-63.
- 김준동 (2002). 교육서비스분야 협상의 논의 동향, DDA세부의제별 간담회 토의자료.
- 박영미 (2002).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정책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13(1): 49-71.
- 우천식 (2003). 대학의 국제공동프로그램 활성화 및 외국대학원 유치 방안, 제1차 Workshop 주제발표, 교육인적자원부: 196-232.
- 이중호 (2002). 교육시장개방과 대학개혁의 올바른 방향, 광주지역정책토론회, 교육인적자원부: 64-74.
- 임재홍 (2003). 신자유주의와 교육법의 변화: 교육개방과 공교육의 위기, 민주법학 23: 203-238.
- 임천순 (2000).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교육협력의 조류와 과제 : 국제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1-25.
- 정진화 (2001). 교육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대응, 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 자료집.
- 기타 교육관련법령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etc..).
- Bell, D. (1973). Post-Capitalist Society, N.Y : Harper Business.
- Brown, T. L. and M. Postoski (2003). Contact-Management Capacity in Municipal and County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2): 153-164.
- OECD (2002). Education Policy Analysis: 117-134.
- Pruitt, D. G. (2001). Negotiation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Internatinal Negotiation 6: 269-279.
- Rogers, D. L. and D. A. Whetten(1982), Interorganizational Coordination : Theory Research, and Implementat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9-31.
- World Bank (1999). A Productive Partnership : The World Bank and The Republic of Korea, 1962-1994, Korea Country Management Unit,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The World Bank.  
<http://www.oecd.org>